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재소자 출소 후 사회 정착 위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 출소 후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다. 재벌들을 비롯한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은 말이다. 그들은 여전히 '갑'이다. 교도소에서도 그렇다는 말이 들린다. 그동안 황제 복역수들이 언론에 오르내렸잖은가. 하지만 대다수는 사회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교도소 특유의 적막감, 자유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각양각색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충분하다. 충분히 이해되는 논리다. 필자도 교도소에서 강의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런데 재소자들과 접촉하면서부터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

물론 죄 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런데 죄를 짓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황과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 또한 있었다. 흉악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죄를 지을 때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영향을 줬을까.' 등을. 태어 때부터 사랑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성장과정에서도 극단의 '알'로만 살아온 경우도 있다.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결국 과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 때문에 출소한 후에는 전과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옥죄어지는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주기도 한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무시하기도 한다. 수치심, 버림받음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형용어인 상황들에 의해 트라우마를 입는다. 갑질 하며 상처 준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분노와 함께 고통스런 감정이 폭발쳐 오를 수 있다. 당연히 그 자체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희망의 상실, 신념의 포기, 냉소, 불신, 원한, 소외감, 미움, 복수심, 사기저하. 이 모든 것들은 정서적인 쇼크나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 압축함을 풀어내게 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잘라버리거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을 만큼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것이다. 두려움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일 수 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보이는 회피행동.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 회피하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트라우마를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생각하고 직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참으로 고통스런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면할 때 필요한 것이 용기다. 용기는 영어로 'courage'다. 심장을 뜻하는 라틴어 'cor'에서 왔다. 격려의 뜻을 가진 단어 'encourage'는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내준다는 뜻이다. 전과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가족만이라도 심장을 줄 정도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면 어떨까. 용기 내어 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지도 마찬가지다. 우울이나 불안감과 같은 많은 신경증도 트라우마로 인한 낙담(discouragement)에서 온다. 역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면 탈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어서다. 의미 없는 존재는 없다. 앞서 말한 재소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은가. 그들이 잘 정착할 때 우리 사회도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던 말이다.

社說

게임중독 사회적 타협안 찾아야

게임중독을 질병(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으로 보느냐, 마느냐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임과 게임산업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달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결정했다. WHO는 게임중독을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조절 불능), 먹고 자는 것을 포함해 다른 모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게임 때문에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등 일상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게임중독 규정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문체부와 게임업계 등 반대 측은 "게임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이 모호한데 무작정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잖아도 청소년 게임에 대한 편견이 강했는데 게임이 정신질환까지 유발한다고 하면 게임을 하면서 불필요한 죄의식을 느낄 수 있고, 게임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창작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측은 "건전하게 즐기는 게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만 질병으로 보고 제때 치료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세계적으로 게임중독을 주제로 한 50여개의 장기 추적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게임업계는 '수출 효과'인 게임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관계당국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정착은 물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한 잔의 술로 운전면허 정지 될 수 있어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윤창호 씨가 만취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국민청원과 많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2018. 12. 18.시행)'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 6. 26. 00시부터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한 잔 좁은 관촬야'에서 시작된 0.05%미만 음주운전은 음주단속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 정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 취소기준은 0.1%→0.08%로 강화되어 무심코 마신 한 잔의 술로 면허정지, 몇 잔의 술이 면허취소로 적발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주운전 범칙의 상한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처벌이 강화되었다. "한잔 딱었는데 관촬겠지" "자고 일어나면 관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 무고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 이제, 한 잔의 술로 운전면허 정지 될 수 있는 날이 시작 되었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주·야·심야 언제나, 어디서든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꼭 단속을 해서가 아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운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이다. 이병철 / 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주방용 K급 소화기 사용 습관화 해야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란 음식찌꺼기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화재의 특성은 착화 시 온도가 상승하면 식용유 표면상의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하고,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소화기의 경우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출 수 없어 언제든지 재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며, 강화약제로 사용 후 정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신기석 / 광주광역시 소방서 진압팀장

신문으로 배우는 오늘의 속담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다”
한 형제간에도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생
기며 같은 등속이라도 고르지 못하다는 말.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민간)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호남신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팩 스 (062) 222-554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광 고 국 (062) 222-5544	Te (02) 2238-0003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honam.com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언론진흥재단